

여풍당당 배 형사도 최 하사도 “야구없인 못살아”



스포츠동아가
한국여자야구를 응원합니다

성벽 넘어 홈런... 그녀들의 특별한 도전

야구는 금녀의 벽이 가장 견고한 종목으로 꼽힌다. 올림픽만 보더라도 그렇다. 유도는 1992년, 역도는 2000년, 레슬링은 2004년 올림픽부터 여성의 참여가 허용됐고, 2012런던올림픽에선 여자복싱도 정식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야구만큼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경기만 열렸다. 그 대신 소프트볼이 여성들의 올림픽 정식종목이었다. 9월 8~9일 전북 익산 국가대표 야구선수훈련장에서 열린 2012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는 이런 금녀의 벽을 깨고 있다. 때로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그녀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현직 형사 선수도, 특전사 부사관 출신 선수도 눈에 띈다. 배새롬(34·서울 몇다불) 씨와 최주리(25·경기 안양 산타즈) 씨가 그 주인공이다.

■ 2012년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경기결과 <9일 일요일>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래미디아몬즈	0	0	1	0	1	0	2	4	2시간10분
마구잡이	0	1	0	1	0	3	X	5	

팀	1	2	3	4	5	6	7	R	패자/타점
해머스툼	7	6	2	8	X	X	X	23	1시간53분 (4회 풀드)
산타즈	1	3	1	0	X	X	X	5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레이디스	0	8	1	0	0	1	2	12	2시간50분 (승부추침)
몇다불	6	0	0	1	1	2	2	12	레이디스 승

팀	1	2	3	4	5	6	7	R	패자/타점
글라디스	2	1	2	4	0	X	X	9	1시간54분 (5회 풀드)
스웨이글스	1	0	2	6	7	X	X	16	

●경기결과 <8일 토요일>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레이디스	8	1	9	1	X	X	X	19	1시간34분 (4회 풀드)
스웨이글스	3	2	1	0	X	X	X	6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몇다불	0	8	2	5	X	X	X	15	1시간33분 (4회 풀드)
글라디스	2	0	0	1	X	X	X	3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래미디아몬즈	11	0	2	1	X	X	X	14	1시간24분 (4회 풀드)
산타즈	0	0	4	0	X	X	X	4	

팀	1	2	3	4	5	6	7	R	승자/타점
해머스툼	0	4	4	1	1	0	1	11	2시간36분
마구잡이	0	1	8	1	0	0	2	12	

그라운드 ‘매의 눈’ 현직 형사 배새롬 씨 사회인야구팀 남자들과 호흡 맞추기도 “법률보다 야구규칙 익히기 더 어려워요”

군인정신 돌돌...특전사 출신 최주리 씨 3개월전 남자친구따라...야구매력 흠뻑 “단결은 필수...꼭 한번 홈런 치고 싶어요”

●형사 선수 배새롬 씨

배새롬 씨는 현재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경사로 근무 중이다. 야구장 밖에선 공무원 범죄, 지적재산권, 불법오락실, 사금융, 보이스 피싱, 선거사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그라운드 안에서도 ‘매의 눈’을 켜야 한다. 그녀는 팀의 감독임과 동시에 투수와 유격수 등 주요 포지션을 맡고 있다. 1990년대 후반 PC통신 열풍의 시절, 소프트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야구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학교도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할 정도였어요. 대학 때 배운 유도로 공인3단입니다.”

소프트볼로 기본기를 익히고, 2006년부터 야구에 뛰어들었다. 중부경찰서 사회인야구팀에서 남성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리틀야구장에선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됐다. “야구는 몸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경찰도 법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제 업무만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집시법, 풍속영업관련법 등등... 그런데 그것보다 야구규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야구는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팀 내아의 핵심인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 다이빙캐치를 해서 더블플레이로 연결시키는 장면을 상상하곤 한다”며 웃었다.



금녀의 벽이 가장 견고한 종목 중 하나인 야구에서도 서서히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현직 형사인 배새롬씨(왼쪽 사진)와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최주리 씨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선수들이 여자야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전사 출신 선수 최주리 씨

최주리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특전사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주요 임무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특수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겨울 강원도의 오지에서 진행된 설한지(雪寒地) 생존훈련은 물론 스키훈련까지도 모두 이수했다. 폭풍이로 동토를 깨고 숙영지를 만들던 장면까지 골절 설명해냈다. 국군의 날에는 격파시범을 한 적도 있다. “군인은 사명감과 자부심 등 남

다른 직업정신이 있잖아요. 군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전사에 자원했습니다.”

전역한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아서인지 소위 “다나까” 말투가 튀어나왔다. 야구와 인연을 맺은 지는 3개월이 흘렀다. 남자친구와 캐치볼을 하다가 야구의 매력에 빠져 안양에 있는 야구팀에 찾아갔다. 이후 특전사에서 단련된 운동신경 덕분에인지, 짧은 시간 만에 좌익수 자리를 꿰찼다. “군대에서



도 단결의 정신이 중요하듯이, 야구도 한 명만 잘 해선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야구와 군대의 공통점입니다. 사격 때처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비슷하구요.” 야구선수로서 아직 새내기인지라 그녀의 포부는 원대하다. 최 씨는 “물론 어렵겠지만, 꼭 한번 홈런을 치고 싶다”며 배트를 휘둘렀다.

익산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아낌없는 지원... “꿈의 첫승팬 헝가레도 받아봤죠”

■ 소문난 야구광...대전 레이디스 김근영 대표

현재 대다수 여자야구팀들은 팀원들이 낸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팀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운동여건은 그녀들의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점에서 대전 레이디스는 타팀들의 부러움을 산다. 든든한 지원군이 존재하는 덕분이다. 대전 레이디스 김근영 대표(52·대전광역시야구연합회장)는 2007년 팀 창단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팀에 힘을 주고 있다.

사회인야구 구력만 30년차인 김 대표는 대전

지역의 소문난 야구광이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비로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선수들을 지원하는 등 야구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2007년 지인의 소개로 여자야구에 관심을 갖게 된 김 대표는 그해 11월 팀 창단작업부터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선수도 9명이 안됐어요. 제가 감독으로 있던 사회인야구팀원들과 이프까지 끌어들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침 차게 출발은 했지만, 창단 초기에는 연전연패. 폴드게임 패를 안당하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화식자리를 챙기는 것은 기본. 선수 출신 코치를 섭외하기도 하고, 지

방대회 때면 사비로 전세버스를 제공해 편의를 도왔다. 마침내 그 결과가 2009년 8월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KBO 총재배 전국여자야구대회에서 나왔다. “예선 첫 경기에서 창단 2년 만에 첫 승리를 거뒀어요. 마치 우승을 한 것처럼 선수들이 저를 데리고 그라운드로 나가더니 헝가레를 치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3월 대전광역시야구연합회장에 취임한 뒤로는 구장 섭외 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익산 국가대표 야구선수훈련장에서 야간 경기를 치른 레이디스는 전날 대전에서 라이트를 놓쳤고 적응훈련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대전 레이디스 김근영 대표는 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레이디스가 2년 만에 강팀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김 대표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 익산 | 김민성 기자

“프로야구가 700만 관객을 바라볼 수 있었던 데는 여성 관객의 역할이 컸음을 기억해야 한다. 리틀야구 시절부터 여자선수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 | 전영희 기자

편집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치킨 창업

WellBeing Chicken 100% 한앤돌 치킨은 신선한 국내산 생닭만을 고집합니다,

새로운 컨셉을 만나야 성공한다!

한앤돌치킨은? 바삭바삭 후라이드 ~ 속살 촉촉 오븐구이 ~

고품격 Well-being 야채 숙성치킨과 담백한 오븐구이를 하나로!
품격있는 맛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더해 성공창업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한앤돌만의 카페식 인테리어



지금 상담하세요!
창업문의 02.333.8555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사업설명회 : 매주 수요일

창업체험 이벤트

“한앤돌치킨 매장에서 3일간
직접 체험해 보세요
교육비 면제 혜택과 본사지원
시식이벤트까지
한앤돌과 함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세요”

계약특전

- 교육비 면제
- 무이자 대출 최대 7천만원
- 오픈시 본사지원 시식이벤트

한앤돌치킨
www.onetwo.co.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